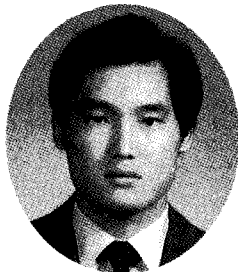


환경인회관건립

환경인의 단합과 힘을!



김기영

(건화상사(주) 환경관리인)

여름, 가을, 겨울, 봄, ... 이 계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꽃도 열흘을 붉지 못한다 했듯이 시간의 흐름속에 계절 또한 변하게 마련이라는 생각과 함께 문득 떠오르는 것은 오랫동안 환경분야에 근무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여유로움을 잊고 지낸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먼저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맑고 푸른 조국의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든 환경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 환경의 현실을 돌이켜보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앞에 그 개선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일말의 불안과 공포를 금할 길 없다는 마음으로 감히 이렇게 펜을 들어본다.

현재 지구전체에 산성비, 온실효과, 성층권의 오존층파괴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WMO(세계

기상기구)가 최근 위도 30-64도의 중위도 지역 상공에 겨울땀 봄철에 상당량의 오존층이 실종되고 있다고 보고, 전세계가 오존층 공포에 떨고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도 계절에 따라 오존층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있는 실정으로, 이같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아직은 관심밖이라 보는이도 있겠지만 지구의 대기이동에는 국경이 없어 오존층파괴는 국제 사회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오존층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중국 산둥반도의 공업화추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단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한다는 국제적 협조입장에서 이에 대한 강구책이 요망된다고 본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

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거론되어온 만큼 이제 이 환경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60년대 이후 절대 빈곤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 우선 정책으로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피해도 막대해 우리의 국토와 맑았던 강물은 오염되어 이제 치유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환경오염의 피해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환경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다.

현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기사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모두 합하여 2만 6천여명으로 각 기업, 학계 등에 진출하여 보다 나은 우리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

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등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보다 나은 처리효율을 이루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더나가 맑고 푸른 조국의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기업에서도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여기에 모든 국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단 하나뿐인 지구위에 세계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1980년에 환경청이 발족되어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이와 때를 맞추어 조국의 환경보전에 여념이 없는 환경관리인의 모임인 전국 환경관리인연합회가 환경인회관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자는 소식을 접한 것은 지난 3월 회보(환경관리인)을 통해서였다.

우리 모든 환경인이 그토록 열망하던 환경인회관은 가깝게는 관리인, 더나가 관·산·학에 종사하는 진정 우리의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이들의 우리집을 짓기 위한 대역사 아닌가?

여기에 환경인회관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관리인의 결집력과 응집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수십, 수백구좌도 바람직하겠지만, 비록 한 사람이 한 구좌씩이라도 아니, 두 사람이 한 구좌씩이라도 몇만, 몇십만이라는 적극적인 호응을 나타낼 때 이는 어느 한 특

정인이 기부한 1억 아니, 수십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준엄한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게 되지 않을까?

너와나와 우리모두의 뜻을 모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합일점을 나타낸다는데 환경인회관이 완성되면 모든 관련인들이 회관내의 자료실·전시실을 이용한 모든 관계자료의 열람은 물론, 환경문제 제반의 실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 독립사무실과 회의실을 이용 보다 폭넓은 논의와 토론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도서실과 각 실험실도 준비되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랴!

우리집을 짓기 위한 대역사에 환경관련인의 참여는 물론이고,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국민의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이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런지... 회관건립의 시발은 연합회였지만, 이는 결코 환경인만으로 대상이 제한 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연합회측에서도 연합회사업으로만 한정짓지않고 보다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 한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비단 환경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할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환경공무원은 환경보전의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환경교수는 이 나라의 환경관리관 정책을 짚어 나갈 이들을 지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환경기업인은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숭고한 이념으로, 환경언론은 국민의식개혁과 홍보, 그리고 환경보전의 활성화를 위한

선두주자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 될 것이며, 환경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장의 관리인은 환경보전의 최일선이란 중책을 맡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다.

더불어 모든 국민들의 호응을 거대하는 것은 환경보호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이요, 숙명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나와 우리의 자손만대가 누려야 할 조국의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실로, 이 환경인회관건립은 모든 환경인이 애태워 기다리던 오랜 샘물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오랜 인고의 기다림을 뚫고 이제 대역사가 이루어지려는 이 마당에 비록 적으나마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이 줄을 이을 때, 비단 환경 관련인뿐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더나가 모든 국민의 호응을 얻어 우리의 회관건립이 그만큼 앞당겨지리라 생각한다.

감히 말해 보고 싶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며, 진정 우리의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이들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정성이 이어져 우리 모두의 지대한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결코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는 결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모든 환경인, 그리고 우리의 푸른 조국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까지 지리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과 지면을 할애해주신 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하나, 나라도 하나, 세계도 하나, 우리 모두 하나되어 오염행위 근절하자!